



머리글

강인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 / 살레시오회

반~갑~습~니다!! 반갑 습~니다.(북한가요버전) 그리고 감사와 축하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사순 시기의 희생과 보속으로 후원회원님과 회원님 가정이 하느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식지를 열며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레시오회의 강인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입니다. 올해부터 매주 서울지역 분류심사원과 고봉중고등학교(소년원) 사목을 순명으로 맡았습니다. 또한, 평일에는 6호 시설(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 감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머물며 교육을 받는 시설)에서 20여 명(정원 45명) 학생들의 인성, 종교, 생활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심사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돈보스코 오라토리오라는 6호 시설이나 고봉중고등학교 천주교 반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서 기쁘게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명의 친구가 분류심사원에서 6호 처분을 받고 돈보스코 오라토리오에 왔습니다. 보통 처음 온 친구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낯선 환경, 처음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잔뜩 움츠러들면서 옵니다. 인솔해 오신 선생님들께서 새로 온 친구들이라면서 소개해주려 사무실로 소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가 ‘어~ 신부님이다’라고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분류심사원에서 봤다면서 여기서 신부님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50명 이상의 소년들을 분류심사원 천주교 종교행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았던 저를 기억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며, 아는(?) 신부님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밝아지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에 적응 못 해서, 우울해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세 소년은 열심히 적응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겠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치듯 지난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두려움에 떨 친구들의 마음을 녹이고 당신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1970년 4월 2일.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시작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창립 49주년입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창립되었기에 살레시오회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금까지 만나며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있기까지 영적, 물적으로 수고 해주신 모든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 봉사자,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관심과 사랑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3월 4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가톨릭회관 3층에서 봉헌되었습니다. 이번 미사에서는 강인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의 주례와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가 공동 집전하였습니다. 강인석 신부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 마음 안에 빈틈을 파고들어 하느님께 돌아서게 만드시고, 하느님의 제자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신다.”며 “지금은 비록 의미 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사목과 봉사활동이 하느님 말씀의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힘차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론을 통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58차 정기총회

3월 9일(토) 교정사목센터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58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장인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를 비롯한 이사, 감사, 정회원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신임이사 선임 건과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예산 심의 안건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경춘 주교는 “하느님 사업을 그분의 뜻으로 우리가 잘 실천했는지, 1년 동안 노력해왔는지, 회원의 뜻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다.”며 “교정사목을 통해 간혀있는 이들의 잘못된 상처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준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격려하였습니다. 건강하게 하느님의 복음을 교정시설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이사, 고문, 감사 그리고 운영위원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세례식

3월 12일(화) 서울남부구치소 여사에서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두 자매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가 함께 자리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고, 베풀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김성일 에리스도_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 찬미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 2,19-20)”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고 명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동사이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동사입니다. 그것은 ‘사랑했었다’가 아닌 현재 ‘사랑하고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현재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가 한 분이신 그분을 믿는 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전파를 실천하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는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의 운영위원으로서 우리에게 내려진 사명은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보듬지 않기 때문에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형제 그리고 자매들에 대한 봉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앞으로 만나야 할 아픈 이들에 대한 봉사 실천과 복음전파를 위하여 겸손되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49주년 맞이 축하 인사

서울에서의 교정사목은 근대 이후 주로 교도소 근처의 본당과 관심이 있는 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조직적인 사목의 필요성을 느낀 서울대교구는 1970년 4월 2일 '교도소 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2019년 4월 2일 49주년이 됩니다. 뜻깊은 49주년을 맞이하여 각 교정시설 대표봉사자들의 축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 장명렬 켄마 갈가니 /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대표봉사자 (총 대표)

교정사목 4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 다.”(마태25,43)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교정사목 하게 되었는데 벌써 반백 년이 되었네요. 신부님, 봉사자님, 주님 은총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조현숙 루시아 / 서울구치소 남사 대표봉사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4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초석이 되어주신 역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선배봉사자들과 후원회원님들, 언제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교정사목회와 함께해 주셨음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축복과 이끄심에 의탁하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정정화 로셀린 / 서울구치소 여사 대표봉사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 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온 지 49주년 맞았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더 멀리 전파되도록 함께 걸어갑시다.

❖ 김정애 마리아고레띠 / 서울구치소 최고수 대표봉사자

절망과 좌절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빛을 밝혀온 사회 교정 사목위원회 창립 49주년 축하합니다.



❖ 구은희 임마꼴라따 /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대표봉사자

교정사목 4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세상에 베푸신 사랑과 위로가 교정 사목을 통해 소외된 모든 이에게 더욱 미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 안옥수 데레사 /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대표봉사자

교정사목 4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정사목을 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김순애 마리아 막달레나 /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대표봉사자

교정사목 49주년을 축하합니다. 봉사자 후원회원님들과 재소자들 모두 평화를 빕니다.



❖ 최경애 율리아나 /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대표봉사자

교정사목 4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교정사목에 관계되는 모든 분이 주님의 사랑과 서로의 사랑으로 기쁨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남미숙 율리아나 /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대표봉사자

교정사목 4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날에 봉사자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 전순이 엘리사벳 / 고봉중고등학교

긴 시간 교정사목과 함께 소외된 이들을 위해 후원과 봉사를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도 이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영옥 요셉피나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대표봉사자

교정 49주년을 축하합니다. 어느덧 반세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정사목을 함께 하셨던 신부님, 수녀님, 봉사자, 후원회 많은 분이 함께하셨기에 오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네요. 앞으로 계속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이팅!!

봉사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49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용자와 출소자,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49주년 맞이 축하 인사'로 인해 '성경 속 인물과 교정'은 쉽니다.

현대일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부님께 큰 도움을 받은 소년수용자입니다.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도움만 받게 되어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지난해 12월경에 넣어주신 영치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도 저는 신부님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2만 원이라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영치금 덕분에 저는 교정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사서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이렇게 세 가족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현재 간경화로 복수에 찬 물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그 좁은 집안에서도 거동하실 수 없으셔서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시며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일을 하실 수 없고, 가끔 저를 보러 와주시거나 아버지 병간호를 하시느라 이곳에 있는 저를 신경 써주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부님!

죄짓고 들어온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에 정말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깊게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던 중 치통으로 고생하다 충치가 많아졌는데, 교정시설 내에서 진료를 받으면 큰 비용이 발생하여 부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형편이 되지 않아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구치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지은 잘못에 대해 시간을 되돌려 저 자신을 제가 말리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사실 치아 치료는 저에게 있어 너무 큰 돈이 필요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치소의 주임님들과 계장님, 신부님께서 인연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세상에 참으로 좋은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저도 이곳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좋은 분들과 나란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을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도와주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남은 교정생활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여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출소하거나 그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부님을 직접 뵙고 감사한 심정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부님과 주임님들과 계장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여전히 치료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제 치아의 문제로 같은 방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던 것을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큰 비용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해 줄곧 도움을 청하기도 힘들었는데, 주위에 계신 삼촌들과
주임님, 계장님, 신부님 덕분에 치료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에서 지내게 될 때는 신부님 같은 넓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늘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2019. 03. 07

소년 수용자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시는 형제님께서 치과치료 지원을 받아 사회교정사목에 감사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9년 5월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

5월 월례미사는 후원회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야외미사로 봉헌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위해 늘 함께 하시는 후원회원 및 봉사자들이 신부님과 함께 자연 속에서 뜻깊은 미사도 하시고 더불어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일시: 2019년 5월 13일(월) 오전 9시 (가톨릭회관 후문 출발)
- * 장소: 강화도 갑곶순교성지 * 회비: 10,000원 * 접수: 4월 1일(월)~19일(금) (선착순 80명)
- * 준비물: 걷기 편한 복장과 신발, 따뜻한 물, 모자 외 * 전화접수: 02)921-5094
- * 5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과 기부자를 소개합니다. (2/12~3/11)

2월~3월에는 곽영웅 안드레아, 송지영 안젤라, 윤광석 바르톨로메오, 이민아 마르치아나, 황인분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입금자를 찾습니다

입금자명으로 후원자 확인이 되지 않아 **최금희, 로사로** 입금해 주신 분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후원사업부: ☎ 02)921-5094)

● 행사 알림

- 4월 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4월 1일(월) ~ 5일(금)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1기 집중인성교육 / 서울동부구치소
- 4월 10일(수) ~ 11일(목) 해밀 가족 야외회 / 경상남도 통영



안동교구 교정사목 물품 판매

- ▶ 사과 1BOX(38과) 10kg ₩40,000(택배비 포함) ▶ 사과즙 2BOX(1BOX 50포) ₩50,000(택배비 포함)
- ※ 구입문의: 안동교구 교정사목 054)874-2397 ※ 계좌번호: 농협 737-01-082846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 ※ 수익금은 전액 안동교구 교정사목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